

법회 안내

조계사(02)732-2115
신도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관음화법회 매주 토 오전11시
반야화법회 매주 금 오후7시
원심화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대학화법회 매주 토 오후3시
홍은사(02)822-1990
초하루법회 매월 1~3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5~18일(음) 오전10시
가속법회 매월 1·3주 토 오후7시
관동사(02)355-4148
일반법회 매월 3일(음) 오전10시
방생법회 매월 8일(음) 오전10시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광명사(02)735-1896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구암사(02)877-2378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반야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해동유공사(02)722-7744
초하루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
보통법회 매월 15일(음) 오전10시
지장재일 매월 18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연호사(0356)85-0686
초하루법회 1일(음) 오전10시30분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30분
수요법회 매주 수 오후7시30분
일요정가법회 매월 일 오전10시30분
은적사(053)653-1572
거사법회
매월 1·3주 매주 수 오후7시30분
청년화법회 매주 일 오후7시
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삼충사(0441)847-7296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부법회 매주 일 오후3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
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38)로 연락바랍니다.

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 인터뷰

새싹포교·호남불교에 '새바람'

대상 천운스님 (대문사 주지)

"불교발전을 위해 평생 노력을 세워 실현하신 신배스님과 불자도 많은데 제가 포교대상을 받게 되니 미안할 따름입니다."

30여년동안 불교의 불모지인 전남·광주일원에서 포교활동에 주력해 한국불교에 호남불교의 새바람을 일으켰던 천운스님(대문사 주지)이 포교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스님은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스승의 모습으로 성불하겠다는 신심을 키워주었고, 끊임없는 정

진력을 가르쳤다"며 어린이포교가 호남불교 불 조성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향림유치원, 향림사어린이집, 천운어린이집을 설립해 어린이 포교활동에 앞장서는 한편 70여명의 고아, 소년원 등 소외계층을 돌보아 주셨는데 한평생을 다했다. 또 전남 지방경찰청 경승실장, 광주교도소 교화위원회 불교회장 소임을 보며 군인, 경찰포교에도 일익을 담당했다.



"온 우주가 나와 더불어 사는 것만큼 정신이상자, 장애인, 고아들을 위해 불자들이 적극 대자대비를 실천하며 살았으면 한다"는 스님은 불교복지향상을 위해 남은 여생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초창기 청소년 포교 기틀 다져

공로상 김재영 법사 (동덕여고교사)

경상을 받은 것. 김법사는 "상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만 뒤로 물러나야 할때임을 예고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과 인연이 있는 한 묵묵히 제 몫을 다해내는 진실한 한사람의 불자로 내 길을 가겠습니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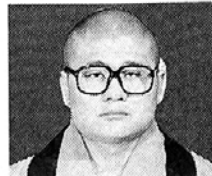
전교생의 1/5에 육박하는 3백여명의 불교학생회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김법사는 교사생활 틈틈히 청소년 포교(보리)를 비롯 불교교재(롬비에서 구사나 가라까지) (우리도 부처님처럼) 등을 펴냈다. 또 '청보리회'를 결

성, 재학생과 졸업생간의 유대관계를 마련하고 꾸준한 실행생활을 도왔다. "청소년포교는 불교를 위해 포교하지 말고, 청소년을 위해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틈틈이 청소년비행을 비난하고 방만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를 불교의 문제로 인식, 해법을 찾는 지혜를 내야 합니다"며 생활속 불교를 통한 청소년포교의 대안을 제시했다.

도필선 기자

자비동자 보급 운동

효종스님



"청소년회관 세울 터"

"청소년 포교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가 너무나 부족한 실정입니다. 청소년 포교를 위한 공간부족을 안타깝게 여기다 청소년 회관건립의 원을 세웠습니다."

청소년 회관건립기금 마련을 위해 각 가정마다 자비동자그림을 보급중인 효종스님(대한불교 청소년교화연합회 부산지부장)의 말이다. 3년전부터 청교원 부산지부를 맡아 청소년 자원봉사활동과 포교에 힘써온 스님은 지난 6월부터 청소년 회관건립의 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매일 새벽마다 정진하는 마음으로 자비동자그림을 그리고 그것의 판매 수익으로 건립기금을 조성중이다.

스님은 "청소년회관은 100평 규모 5층 건물을 도심속에 건립할 계획"이라며 "다도교실, 예절교실 등의 청소년 문화공간을 개설해 청소년 교육과 포교공간으로, 또 예식장이나 각종 행사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스님은 물론 불자 모두가 한국불교의 미래와 자신의 자녀를 위해 투자한다는 마음으로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051)633-6412

부산=천미희 기자



제가단체 신년하례법회

제가단체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15일 롯데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법회에는 김명운 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동일 재가불자연합회장 등 신년단체대표와 석주(철보사조실) 법흥(원효종정)스님, 김영수 문체부장관, 송석구 동국대총장, 서석재 국회정각회장, 최형우의원, 조해형 BBS사장 등 6백여명이 참석했다.



제12회 불이상 시상식

불이회(회장 홍라희)가 시상하는 제12회 불이상 시상식이 지난 16일 한국불교연구원 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시상식은 김상영 교수(중앙승가대) 김재영법사(청

보리회 대표) 명성스님(동국대 역경원) 선담스님(동국대 박사과정) 등 수상자 4명과 정병조교수(동국대) 윤용숙씨(여성문제연구소) 등 1백여명이 참석했다.



서울 경찰청 경승위촉 받아

자우 금강사 주지는 지난 6일자로 서울경찰청 경승으로 위촉됐다. 스님은 79년부터 서울시경 경승법사로 추천돼 활동해 왔다.

해광 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 스님은 최근 <연꽃삼>이라는 회지를 발간했다. <연꽃삼>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등을 특별기획 했다.

중문 해원사 주지는 지난 20~22일 성북구 내 생활보호대상 1백50가구에 각 쌀 20kg, 라면 2박스, 떡을 전달했다.

성원 선원사 주지는 오는 23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

성원 선원사 주지는 오는 23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연꽃삼' 경승 회지 발간

해광 국립경찰병원 경승실장 스님은 최근 <연꽃삼>이라는 회지를 발간했다. <연꽃삼>에는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사랑' 등을 특별기획 했다.

중문 해원사 주지는 지난 20~22일 성북구 내 생활보호대상 1백50가구에 각 쌀 20kg, 라면 2박스, 떡을 전달했다.

성원 선원사 주지는 오는 23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

성원 선원사 주지는 오는 23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성원 선원사 주지는 오는 23일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해인사일대로 성지순례를 떠난다.

리의식과 자치시대에 부응하는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특강한다.

청불회 법정스님 초청법회

박세일 청와대 불자회장(사회복지수석)은 오는 29일 오후8시 서울 법원사에서 법정스님을 초청해 월례법회를 봉행한다.

문화재수리기능협회장 재선

전홍수(사)문화재보존수리기능협회장은 지난 10일 문화재보존수리기능협회 정기총회에 서 임기 2년의 새 회장에 재선됐다.

도서 한국지문화 소개 행사

김승희 한국차 생활문화원은 회원 20명과 함께 일본 가다가 마구라 박물관에서 '한국차문화 소개의 날' 행사(2일)를 위해 오는 2월 1일 일본으로 떠난다. 4일 귀국 예정.

동국대미술인회장 밝혀

전연호씨는 동국대미술인회 제3대 회장에 선출됐다. 수석 부회장은 이진형 부회장은 곽동해 정병국씨가 선출됐다.

심성개발 상담센터 개설

현정 시인(한국JTS 감사)은 최근 서초구 방배동에 '현정 심성개발 상담센터'를 개설했다. 상담센터에

동국대 불교학박사 6명 탄생

동국대 96학년도 불교관련 박사학위 논문으로 모두 6명이 통과했다. 이번엔 통과된 논문은 장익법사의 '밀교형상에서의 중관유식의 교학적 수용 연구'를 비롯 황규찬씨의 '신라 표원의 화엄의 문답연구' 김사업씨의 '현상의 성립에 관한 유식적 연구' 이기운씨의 '법화삼매의 사상체계 연구' 박인성씨의 '유부의 유위사상에 대한 예비연구' 김성철씨의 '유수의 중관논리의 기원-방편심론의 상응논법을 중심으로' 등이다.

서는 개인상담 성격교정 심성개발 등 다양한 마음나누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02)585-0042

(주)엘리코리아 이사 취임

이주영 가람기 확대대표는 지난 3일자로 (주)엘리코리아 업무이사에 취임했다.

김성철씨

김성철씨

황규찬씨

황규찬씨

김성철씨

김성철씨

수석합격

동국대 △서울 캠퍼스 수석 한천희(포항제철고 졸·연극영상학부 지원) 1,000점 만점 889.4점
△경주캠퍼스 수석 이상현(학성고 졸·한외대 지원) 1,000점 만점 887.256점
△불교대학 수석 임진영(성보고 재) 1,000점 만점 826.988점
△전체수석 김승곤(대구실인고 재·이공학부 지원) 1,000점 만점 882.85점
△불교학부 수석 김민철(김천고 재) 1,000점 만점 704.90점

인사

대한불교신문 △회장 홍교스님(광교사장) △사장 도몽스님(천불사주지)
이전 유미선원(원장 이제열)은 최근 양현구 신정2동 117-36(2층)으로 이전했다. (02)654-9121

생활 속의 불교 106

형형색색의 그물에 갇혀서 살면

"이 세상 모든 생명의 마음은 하나이다.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우주 전체는 생명의 근본 마음, 인간의 근본 마음과 직결되어 있다. 우주 삼천대천 세계는 그냥 하나로 통해서 벽도 없고 천정도 없다. 일체 제물의 마음이 곧 내 한 마음이고 일체 제물의 법이 곧 내 한마음의 법이며 생활이다."

'만법귀일 일귀하처(萬法歸一 歸何處) -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면 하나는 어디로 돌아가느냐는 물음이다. 그러나 돌아갈 곳이 본래 없다. 일체 만유의 근본이 같다면 각각의 모양으로 드러났더라도 근본이 다르지 않으니 돌아갈 곳이 따로 있지 않다. 물론 만물은 형형색색이다. 각각의 모습이 다르다. 하지만 근본이 같다면 모습이 다르면서 실은 다르지 않으니 묘용(妙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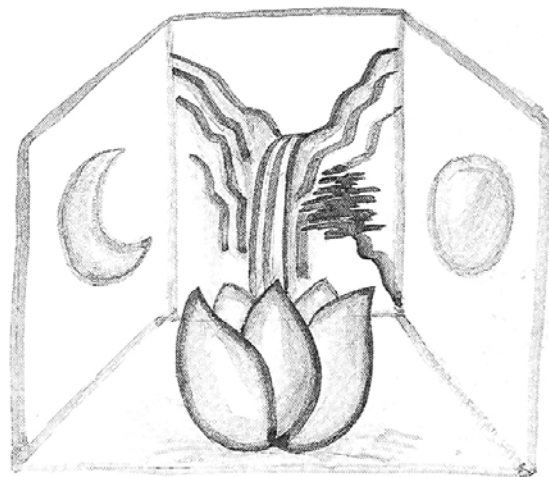
나와 일체 만물이 근본마음에서 같다면 그 마음자리에서 나와 우주는 다르지 않으므로 하나다. '나=우주'이므로 형형색색의 만물은 나의 일부이다.

나의 손이요 나의 발이다. 고로 내 마음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놀리고 부릴 수 있다. 다만 내가 일체와 한마음임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 육신 울타리를 경계로 나와 대상을 구분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부리지 못하는 것이다.

내가 이 육신이 아닌 근본 마음자리에 들면 우주는 이웃 동네집, 아니 내 살림살이에 불과하게 된다. 그래서 손가락 하나로 우주를 떠맡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근본 마음자리-법신불이라해도 좋고 주인공이라해도 좋지만-은 무소불위(無所不爲)이다. 멀어서 못가고 막혀서 못가는 일이 없다. 빠르기로 말하면 빛보다 빠르고 크기로 말하면 우주보다 크고 작기로 말하면 겨자씨안에 들어가고도 남음이 있다.

이 근본마음자리는 일체 만물을 토해 내고도 줄어들지 않으며 일체 만물이 들어가고도 늘지 않는 자리이다. 그래서 육조해능스님께서 이 법신



자리를 깨달으시고 '자성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밭을 어찌 알았으랴' 하셨다.

근본 마음자리는 무주상(無主相)이다. 머무는 자리가 없다. 나와 너에 머물음이 없고 이곳 저곳, 생사, 시공, 이물건 저 물건에 대한 분별이 없다. 따라서 너와 나는 둘이 아니고 생과사가 다르지 않으며 모든 대상에서 평등하다. 고로 극력이 지적이고 지욕이 발밑이다. 소를 건지려면 소가 되고 돼지를 건지려면 돼지가 된다. 무주상이므로 본래는 별 볼 자리가 없고 명리(名利)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들은 마음으로 보면 경계에 얽매어 상이 없음을 상이 있음(有住相)으로 보거나 번뇌와 괴로움에 말려들게 된다. 본래 고요하고 편안한 자리가 그만 엉망이 되고 분별의 그물에 갇혀 움푹달락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다.

금강경 말씀에 '수보리아 여래를 여래로 보느냐는 물음이 있다. 본래 무주상인데 너는 유주상으로 볼 것이냐

를 반문하는 경책의 말씀이다. 그래서 결론으로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라 하였다.

형상이란 본래 상없는 근본마음자리의 나뭇잎이 쓰임일 뿐인데 형상을 고정된 것으로 보고 거기에 얽매어 있으니 물건 저 물건에 대한 분별이 있다. 상이 아닌 줄 알면 여래를 본다고 한 것이다. 허망하다 한 것은 따로 따로 보는 분별이 허망하다 한 것이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한 것은 아니다. 모든 형상은 근본마음 자리에서 저 물거품처럼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바로 보라는 것이다.

그것을 바로 보아 근본 마음자리에 갇히면 마음은 일체제물의 법이요 생활이 되는 것이다.

이 육신에 갇힌 나로서는 아무리 뛰 어보았자 몇 걸음이 고작이지만 한마음의 자리에서라면 만물이 나의 수족이 된다.

경계의 그물을 끊고 대 자유인으로 살자.

협찬: 김정현